지역 소식통

김제시, 어린이집연합회 초청 간담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유정원) 임원 및 회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관계 공무원, 유정원 김제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원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아동 수 감소로 김제시의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수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교육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병철)는 지난 10일 관내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13개 기관과 협력해 지역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 아동 ·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관계 증진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특히 5~7세 아동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과 부모 · 자녀 간 신체놀이 및 교감활동을 통한 건전한 가족 놀이문화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34팀의 가족이 참여해 자녀와 부모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 쉼 어린이 · 부모 교육", "엄마랑 바디체크 · 커플요가", "아빠는 최고의 놀이대장" 등 온 가족이 실천하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은 본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됐다. 교육 이후에는 가족놀이 활동이 진행되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운동을 통해 건강한 여가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박성일 군수, 정부세종청사 · 국회 · 기재부 방문… 지역 현안사업 반영 위한 지원 요청

박성일 완주군수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6일 정부세종청사, 9일 국회를 연달아 방문해 13일부터 시작되는 기재부 2차 예산 심의에 대비, 과소?미반영된 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먼저 6일 기재부를 방문해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소양~동상(국지도 55호) 시설개량,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 국도지선(용진국도17호~산단)개설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하고 관련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1차 심의에서 쟁점사업으로 분류된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2차 심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같은 날 전북도에서도 송하진 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전 실국장들이 기재부를 방문, 군과의 입체적 공조활동으로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힘을 실었다.

부처 활동에 이어 박 군수는 9일에는 국회를 방문, 안호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확보 군 주요 현안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전북출신(연고) 의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필수다"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군수는 바쁜 국회 일정 가운데서도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을 만나 지역 주요현안인 '전주항공대대 항공기 이서면 상공 운항 소음민원' 관련 완주군민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문화공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문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고산자연휴양림으로 오세요"

1만 3천여 꽃 식재 · 야생화 형형색색 · 코로나 안전 수칙도 만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문화공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문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완주군은 고산자연휴양림, 문화공원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고, 관목 전지작업과 풀베기 및 도로변 화단정비 등 환경정비를 마쳤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피튜니아, 백일홍, 마리골드 등 1만 3000여 본을 식재했으며 현재 샤스타데이지, 꽃양귀비, 금계국 등 다채로운 야생화가 활짝 피어 휴양림과 문화공원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었다.

또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고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제한적으로 개방 · 운영하며 모든 방문객들은 발열체크 및 방문객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시로 방역소독과 환기를 실시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자연휴양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활짝 핀 꽃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방문객들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김제 만들기

김제시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인구의 날 기념행사

김제시는 지난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박준배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및 10개 출산 보육 관련 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제시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갈수록 감소하는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 인식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시민의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의미있는 순서들로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인구의 날 기념 다자녀 유공자 시상에 이어 "같이하는 함께 육아, 가치있는 행복육아"카드세션과 출산.결혼 장려정책 홍보부스, 자녀돌봄 체험부스 운영 및 열매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오카리나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 83,895명으로 지난 10년간 10,451명이 줄어들어 -11.1%라는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감소율을 보인 지역소멸 위험지역이다.

김제시는 이를 극복하고자 출산율 향상과 인구유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명 증가한 168명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 극복되지 않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도 않는 인내심이 필요한 정책"으로 "오늘 행사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제 조성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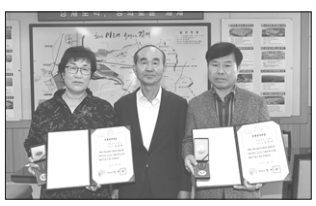
김제시, 2020년 정부 모범공무원 전수식

김제시는 2020년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실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정부 모범공무원은 공무원으로써 시민을 섬기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을 선발하여 그 공적을 기리는 상으로 공무원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상이다.

이번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대상자는 기획감사실 김정곤 담당과 보건소 최복례 담당등 2명인데 기획감사실 김정곤 담당은 적극행정, 자체감사 및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등의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평소 동료 공무원의 모범이 되었다.

한편, 보건소 최복례 담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및 코로나 대응 행정실무와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등 유증상자, 능동감시자 관리에 충실하였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준수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김제시민의 질병예방과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평소 시민을 위하고 모범이 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영광된 상이니 앞으로 더욱 김제시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란다"며 축하와 당부인사를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인구정책 지자체 유일 '대통령상' 수상

완주군이 선제적인 인구정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완주군은 박성일 군수 취임 후 인구증가는 단순한 지원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높이기에 주력해왔다.

이번 평가에서 완주군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원인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 · 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군은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해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소외됐던 청년과 여성, 아동의 위상을 높이고자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초등학생을 웹툰 홍보대사로 위촉해 인식개선을 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완주군의 다양한 활동이 높은 평가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15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했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자만하지 않고 더 충실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의 날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세계 인구 50억명을 기념해 1987년 7월 11일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관심을 갖고자 7월 11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